

‘전북, 잘 싸워주셨습니다’

장애인체전 전북선수단 해단식
입상선수·종목 지도자 포상금

전북장애인체육회는 29일 전주 아름다운웨딩컨벤션에서 지난 15일부터 5일간 서울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북도 선수단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송성환 도의회의장, 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을 비롯해 250여명의 선수단 및 가족,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적 우수선수, 경기단체에 대한 시상과 포상금을 전달하며 선수단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이날 해단식에서는 대회 4관왕과 한국 신기록 2개를 수립한 육상트랙의 임준범 선수를 비롯한 24명의 금메달 획득선수, 사이클의 권상현 선수를 포함한 43명의 은메달 획득 선수, 또 전국체전 출전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한 청각축구팀의 강원보 선수를 포함한 94명의 동메달 획득선수에게 각각 포상금이 전달됐다.

또한, 메달 획득에 기여한 19개 종목 지도자와 종목 종합우승을 차지한 사이클 경기연맹에도 포상금을 전달했다.



29일 전주 아름다운웨딩컨벤션에서 지난 15일부터 5일간 서울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북 선수단 해단식이 열렸다.

송하진 지사는 “중장기 종목별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동계훈련을 지원하고 전문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로 경기단체와 선수들

의 기량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다”며, 선수 유출과 부상이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빛나는 성적을 달성한 선수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장은성 기자

“매 경기 두산 베어스다운 야구 선보일 것”

김태형 감독, 3년 28억원 재계약

김태형(52) 감독이 역대 최고 대우를 받으며 2022년까지 두산 베어스 지휘봉을 잡는다.

두산은 29일 계약기간 3년에 총액 28억원(계약금 7억원·연봉 7억원) 조건으로 김태형 감독과 재계약을 마쳤다.

이는 KBO 역대 사령탑 중 최고 대우로, 김태형 감독은 2016년 겨울에도 당시 최고 대우인 총액 20억원에 재계약을 한 바 있다.

김 감독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통솔력, 빠른 지도력, 빠른 결단력을 두루 갖춘 지도자다. 두산에서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유일한 야구인 이기도 하다.

두산은 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2015년부터 5년간 KBO리그에서 가장 빠른 성적을 거뒀다. 구단 최초로 5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했으며, 2015년과 2016년, 올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V6'에 성공했다.

김 감독은 역대 KBO리그 감독 중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다. 정규 시즌 통산 717경기에서 435승5무277패를 기록하며 승률이 무려 0.611나 된다. 지난



지난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KBO 한국시리즈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4차전 경기, 4승(11-9)으로 우승을 차지한 김태형 두산 감독이 정운찬 KBO총재로부터 감독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월 7일 잠실 SK전에서는 662경기 만에 400승을 거두며 역대 최소 경기 400승 감독이 됐다.

계약을 마친 김태형 감독은 “최고 대우를 해주신 구단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팬들을 위한 야구를 해달라’는 구단주님의 야구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매 경기 두산 베어스다운 야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 폐막식이 열린 지난 27일 평양 청춘지역대전경기장에서 남측 선수단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역도 남북교류 물꼬 트이나

평양 개최 대회 성황리 마무리
北 내년 한국대회 출전 가능성

평양에서 열린 역도대회는 마무리됐지만, 남북 역도 교류는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대한역도연맹에 따르면 북한 역도 관계자들은 이르면 내년 2월말 국내에서 열린 제1회 동아시아 국제 역도대회 참가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아시아역도연맹(AWF) 측에 전했다.

지난 20일 평양에서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가 개막하기 전 AWF 총회가 열렸고, 한국측이 AWF를 통해 전한 참가 요청에 북한 관계자가 이같이 답했다는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북측이 참가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무응답으로 일관했을 것인데 형식적이거나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은 좋은 징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1회 동아시아 국제 역도대회는 동아시아역도연맹 결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최성용 대한역도연맹 회장이 동아시아역도연맹 회장을 겸하면서 첫 대회를 국내에서 치르기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개최지를 물색중이다.

한국 외에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등 연맹 가입국들이 참가한다. 성적이 따라 2020 도쿄 올림픽 출전 자격 점수가 부여되는 대회다.

관건은 향후 북한의 확답이다. 대한역도연맹은 평양에서 지난 20~27일 열린 유소년·주니어 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북한 역도계 관계자와 접촉해 내년 동아시아 대회 출전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 했다.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때도 남북 역도 관계자들은 북한의 동아시아 대회 참가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이번 평양 대회 기간에 논의가 더욱 진전되지는 못했다. 북한 관계자들이 한국과의 접촉을 피했기 때문이다.

경기장을 이따금씩 찾은 수십명의 평양 시민

들이 한국 선수의 경기 때마다 자리를 비우는 등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북한은 한국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는 듯 움직였다. 남북 역도 관계자들도 간단히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 이상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북한의 동아시아 대회 참가 가능성을 낮다고만 볼 수는 없다. 역도계 관계자는 “한국뿐 아니라 AWF나 국제역도연맹(IWF)도 북한의 동아시아 대회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며 “북측 선수들이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공인 국제대회를 적어도 6개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동아시아 대회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역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과시하려는 북한이, AWF나 IWF가 출전을 권고하는 대회를 마다하면서 올림픽 참가를 포기하고 국제 역도계에서 고립되는 상황까지 초래하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련 논의를 이어갔던 태극처럼 북한 관계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제3국’이라면 남·북간의 접촉도 수월할 것이라고 역도연맹은 보고 있다.

12월 중국 텐진에서 열리는 IWF 월드컵에서 남북이 북한의 동아시아 대회 참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역도연맹은 이에 앞서 다음달 북한에 공식적으로 대회 참가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다. /뉴스스

한국 펜싱, U-23 아시아선수권 우승

한국 펜싱이 23세 이하(U-23)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 6년 연속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28일 태국 방콕에서 끝난 대회에서 총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2014년을 시작으로 6년 연속 종합 우승이다. 대회 최종일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이란을 꺾고 우승했고,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홍콩을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뉴스스

축! 전주매일 창간

www.ekr.or.kr

지탄소 녹색성장
녹색사업을 농어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녹색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영농 및 생활환경개선을 촉진 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새만금지역을 동북아의 경제 Hub로 육성,
관광인프라와 소득기반을 구축합니다.

농어촌이 향하는 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농어촌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꿈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우리 농어촌.
어제의 농어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오늘의 농어촌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일은?

농어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용수 및 유지관리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자재 및 해외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